



양현종                      지크                      헤터                      홍건희                      김윤동

## KIA 고정 5선발로 후반기 질주한다

홍건희 4선발 확정...5선발 김윤동 유력

위력 더해기는 임창용...마운드 안정화



KIA 타 이거즈가 '고정 선발진'으로 후반기 총력전을 준비한다. 시즌 전 윤석민-양현종-헤터-지크-임준혁으로 이뤄진 선발진은 KIA의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선발진은 KIA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4월27일 윤석민이 부상으로 빠진 뒤 지난해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왔던 임준혁도 부상과 부진으로 신음하면서 '임시 선발' 체제로 전반기가 돌아갔다. 한기주, 임기준, 최영필, 전상현, 정동현, 정용운, 이준영에 이어 홍건희까지 '일

시 선발' 역할을 맡으면서 매 시리즈 선발고민에 빠져 지내던 KIA다. 일단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는 최고의 선발진으로 치르게 됐다. 12일 예보와 달리 비가 일찍 개면서 양현종을 시작으로 헤터-지크가 정상적으로 SK와의 홈경기에서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소화하게 됐다. 덕분에 주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19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일정도 양현종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임창용의 불펜 가세 속 지난 두산전 홍건희의 호투로 4선발 고민은 끝났다. 지난해에도 선발로 경력을 쌓았던 홍건희는 '진짜 선발'로 출격했던 10월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생애 첫 선발승을 장식했다. 홍건희는 이미 예고된 대로 선발 자리에서 남은 후반기를 보낸다. 후반

기 시작에 앞서 남은 5선발 고민을 끝내겠다는 게 KIA 김기태 감독의 방침이다. 김 감독은 12일 "선발을 꾸리고 가야 하지 않겠나. 정확한 세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이 언급한 5선발 후보는 김윤동, 임기준, 임준혁이다. 윤석민은 일단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대진 투수 코치는 "5선발 고민을 하고 있다. 5이닝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윤석민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선발 후보는 김윤동이 다. 임기준은 고질적인 제구 난조가 고민이고, 임준혁은 지난해와 같은 로케이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닝이 관건이 될 5선발 자리, 가장 좋은 구위를 보유한 김윤동이 눈에 띈다. 여기에 올 시즌을 앞두고 선발 후보로 준비를 한 경험도 있는 만큼 김윤동의 선발 이동에 힘이 실린다. 김윤동은 "복귀전을 치르면서 부담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다. 복귀가

늦어졌는데 마음이 급했다. 경기를 통해서 감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2군에 있다가 3군에서 차분히 연습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타자와의 수싸움이나 경기 풀어나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내 공을 던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감을 잡았다. 일단 1군에 와서 야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윤동이 앞자리로 이동할 경우 불펜 필승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좌완 필승조 역할을 해왔던 심동섭이 계속된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우완 필승조 기대를 했던 한승혁도 기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창용의 매서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 반갑다. 임창용은 "경기를 하면서 변화구 감이 좋아지고 있다. 타자들이 잘 쳐주고 있어서 후반기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타선의 힘을 더한 KIA가 '고정 선발진'으로 후반기 질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챔스필드 기운이 구름을 몰아내고 있다”

덕아웃 **T** 특

▲이상하게 두산에 강해요 = 두산을 만나면, 잡심을 가면 필필 나는 김호령이다. 김호령은 지난 주말 두산과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파워를 과시했다. 프로 입단 후 5개의 홈런을 터트린 김호령은 이 중 3개를 두산 잠실전에서 기록했다. 지난해 프로데뷔 홈런도 잠실 원정에서 두산 이현호를 상대로 기록했다. 김호령은 "이상하게 두산에 강하다. 잠실 경기장이 넓어서 편하게 야구가 되는 것 같다. 이번에도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홈런이 됐다"고 웃었다. 공력에서만 두산을 울리는 것은 아니다. 김호령은 지난 3연전 내내 호수비 행진을 펼치며 두산 타자들을 당혹케 했다. ▲구름을 몰아내고 있어요 =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야구 없는 화요일이 될 것 같았다. 오후 늦게까지 잠맛비가 있다는 기상청 예보대로 비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늘이 밝아지고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이를 본 관중들은 "챔피언스필드의 기운이 구름을 몰아내고 있다"며 경기에 대비해 훈련을 이어갔다. ▲소 한 마리는 잡아야지 = 최고참 최영필에게도 기특한 후배 홍건희다. 홍건희는 지난 1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데뷔 첫 선발승을 기록했다. 12일 훈련도 중 최영필은 "화순에서 잔치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농담을 하며 아바 미소를 지었다. 홍건희는 화순초·중·고를 나온 화순출신이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훈련 시간 내내 함박웃음을 지은 홍건희였다. 데뷔 6년 만에 이룬 첫 선발승. 중요한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해 얻은 선발승이라서 더 기분이 좋다. 홍건희는 "정말 기분이 좋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2억 상당 야구용품 기부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이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광주시야구협회와 전남도야구협회를 통해 광주와 전남 지역 초·중·고·대학 29개교에 2억원 상당의 야구 용품(공, 배트, 보호장비 등)을 전달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박성현 KLPGA 상금왕 속도낸다

내일부터 인천서 BMW 챔피언십...시차 극복 관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공동 3위라는 성과를 올린 '장타여왕' 박성현(23·넵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박성현은 14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영종도 스키야드 72홀장 하늬코스(파72·6천623야드)에서 열리는 BMW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우승 상금이 3억원이다. 박성현은 "이 대회 우승을 놓치지 않으려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여유를 보였지만 우승 상금 3억원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 이번 시즌에 4차례 우승으로 상금랭킹 1위(7억9911만원)를 달리는 박성현이 이 대회에서 시즌 다섯 번째 우승컵을 거머쥔다면 상금왕은 굳히기 수순에 들어간다.

작년 이 대회에서 박성현은 공동10위로 마감했지만 코스는 입맛에 맞는 편이다. 하지만 US여자오픈을 마치자마자 비행기에 올라 대회 개막 이틀 전인 12일에 인천공항에 내린 박성현은 시차 적응이 속제다. 장수연(22·롯데)을 비롯한 상금순위 상위권 선수들은 박성현을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출사표를 냈다. 1억 7579만원 차이로 상금랭킹 2위를 달리는 장수연은 이 대회 우승컵이면 박성현을 추월할 수 있다. 박성현은 1, 2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조운주, 그리고 신인왕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조정탄(수·용평리조트)은 우승자 이소영과 동반 플레이를 치른 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이 1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출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목표는 40년만의 올림픽 메달”

여자배구 국가대표 출사표

8월 6일 일본과 예선 첫 경기

“저희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40년 만에 메달을 따겠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불과 20여일 앞둔 여자배구 국가대표 감독과 12명의 선수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12일 충북 진천선수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을 앞둔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이정철(IBK기업은행) 감독은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3가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한국에 배구가 도입된 지 100년이자 여자배구 대표팀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지 40년이 된 해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1976년 이후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지만 3, 4위전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에 세트 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이 감독은 이 같은 3가지를 선수들에게 자주 언급하고 있다면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내면서 정신력도 강화해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감독으로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구 여제’로 불리는 주장 김연경(28·터키 페네르바체)도 “목표는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목표 의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그는 “물론 선수 생활을 오래 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뛰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절실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막내 이재영(20·흥국생명)은 “언니들을 믿고 패기와 자신감 있게 열심히 플레이해서 꼭 메달을 따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양효진(27·현대건설)은 4년 전 런던에서의 아쉬움을 떠올리며 “메달 문턱에서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메달에 대한 절실함을 잊지 않고 원 없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표팀의 첫 상대는 ‘숙적’ 일본이다. 한국은 8월 6일(현지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일본과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이 감독은 “일본 선수들은 변칙 공격에 능하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비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선전 상대 5개국 중 브라질과 러시아를 강팀으로 꼽으면서 일본과 아르헨티나, 카메룬은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의 맏언니인 이효희(36·한국도로공사)는 “일본은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단조롭지 않은 경기를 하겠다. 무엇보다 일본 선수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은 오는 23일 네덜란드도 출국, 네덜란드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 올림픽 불참 ‘빅4’ 브리티시오픈 격돌

내일 개막...안병훈·왕정훈은 ‘올림픽 모의고사’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145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총상금 650만 파운드·약 96억원)가 14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시우스 아이셔의 로열 트론 골프클럽(파71·764야드)에서 개막한다. 브리티시오픈은 1860년에 창설돼 다른 메이저대회에 비해 단연 오래된 전통을 자랑한다. US오픈이 1895년, PGA 챔피언십은 1916년에 시작됐으며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는 1934년에 첫 대회가 열렸다. 모두 156명이 참가하는 올해 브리티시오픈에는 세계 랭킹 1위부터 4위까지의 ‘빅4’를 비롯해 올해 마스터스 우승자 데니 윌렛(잉글랜드) 등 세계적인 선

수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1위 제이슨 데이(호주)와 2위이자 올해 US오픈 챔피언 더스틴 존슨(미국), 지난해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제패한 3위 조던 스피스(미국), 2014년 이 대회 우승자인 4위 로리 매켄로이(북아일랜드)가 양보 없는 ‘샷 대결’을 벌인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리우 올림픽에는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 올림픽 국가대표 안병훈(25·CJ), 왕정훈(21)을 비롯해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 이상희(24), 이수민(23·CJ 오소핑), 노승연(25·나이키골프) 등 6명이 출전하고 케빈 나, 제임스 핼(이상 미국), 다니 리(뉴질랜드) 등 교포 세 명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